

글로벌기업 1819 리포트

웅크리아 일렉트릭



웅크리아의 KNX 기반 객실제어시스템.

“제3의 영업 조직 만들어 시장 확대 할 것”

네트워크로 협업 생태계 구축
 ‘인다이렉트 비즈니스’ 추진
 새 먹거리로 선박 시장 정조준
 신제품 개발로 수출 시장도 노려

웅크리아 일렉트릭(대표 이윤희)은 스마트 빌딩 제어의 국제 표준인 KNX 기반의 스마트 빌딩 제어 시스템과 고품질의 배선기구 제품들로 유명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웅(JUNG)의 한국지사다.

단순히 본사의 배선기구를 국내에 공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3의 영업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개발에 열심이다.

이윤희 대표는 네트워크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업인 ‘인다이렉트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웅크리아는 IT 네트워크, IBS 시스템 업체들과 손잡고 JLL, CBRE 등 해외 건물 투자자에 출입, 통제, 보안, 조명 등 빌딩 종합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종합솔루션은 맞춤형 컨설팅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으로 체계적이며 편의성이 높다”며 “유지보수 문제도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권 고급 브랜드 업체 헤펠레(건축 및 가구 하드웨어), 에르코(고급형 조명), 송피(전동차양) 등과 손잡고 제조와 프로젝트 영업에서도 협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수의 파트너사와 손잡고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웅크리아는 직접 영업하는 ‘다이렉트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사업을 발굴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는 다이렉트 비즈니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라며 “기존 호텔과 고급주택에 국한됐던 시장이 대단지 아 파트, 상업용 빌딩, 고급복합주택 등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1단지와 7단지 약 3000세대에 웅크리아의 유럽형 배선기구가 공급된다. 이 대표는 “웅크리아의 배선기구가 종합 공급되는 것은 웅이 국내에 진출한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상업용 빌딩과 고급복합주택에는 객실제어시스템이 납품된다.

대림산업이 건설하고 있는 초호화 고급복합주택 특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도 객실 제어시스템이 공급된다.



이윤희 웅크리아 일렉트릭 대표.

KNX에 기반한 이 시스템은 조명, 블라인드, 냉난방, 대기관력차단 등 객실의 다양한 장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상업용 빌딩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며 “KNX 기반 조명 블라인드 제어 시스템과 유럽형 배선기구가 주 공급품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영업망 확대는 대형건설사의 미래형 모델하우스에 진출한 덕을 봤다.

현재 웅크리아의 배선기구는 대림, 대우, 롯데건설의 각 미래형 아파트를 선보이는 ‘수주형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다.

이 대표는 “특히 대림산업의 수주형 모델하우스에서 큰 반응을 얻어 이후 롯데와 대우의 모델하우스에도 서둘러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웅크리아는 새로운 먹거리로 선박 시장을 조준하고 있다.

대형 선박, 크루즈, 요트 내 객실에 자사의 고급 배선기구를 공급하기 위해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큰 선박의 경우 3만여개의 배선기구가 들어가는데, 배선기구 공급 규모로 보면 이는 슈퍼타워급 이상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신제품 개발로 수출 시장도 노린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웅크리아는 올해 직접 개발·생산한 대기전력차단 컨트롤러를 소켓 형태로 제작해 역으로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을 감지해 알려주는 환경센서도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수출도 타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안정적 매출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 형태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올해 다이렉트 비즈니스의 하나로 온라인몰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진 인턴기자 ejin@

비상전원 업계의 2019 New Vision (2)티에스파워

품질우선주의...발전기업계 ‘강소기업’



티에스파워는 고품질과 환경을 위한 시스템 경영을 올해 목표 세웠다.

티에스파워(대표 박기봉·사진)는 1996년 설립됐고 2004년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비상발전기업계에서 잔뼈가 굵다.

설립 이후 기술과 생산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티에스파워는 발전기 세트와 동체, 컨트롤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 방음형 발전기 세트와 수·배전반 또한 제작하고 있다.

티에스파워는 발전기 전문 업체인 만큼 발전기 부문에서 발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발전기 협력 관계를 맺었고,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대방건설 등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창사 이후 연구·개발을 꾸준히 한 덕에 총 4개의 발전기 부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납품 실적으로는 동부제강, 일산 신한은행 전산센터, KBS 본사, 파푸아뉴기니, 한국도로공사, 공군 이동형 발전차 등이 있다. 특히 2011년 공군에 납품한 2000kW 이동형 발전차는 군 최초로 도입된 이동형 발전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송사에서 은행, 군까지 납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티에스파워만의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티

에스파워는 성능인증,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발전기업계가 획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창사 이래로 박기봉 대표가 변하지 않고 중시해 온 ‘품질우선주의’ 덕분이다.

티에스파워는 2008년 이후로 한국에서 해외로 입지를 넓혀왔다. 2008년 제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에도 참가했다. 이후 2009년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2010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박기봉 티에스파워 대표는 “발전기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녹색지 않은 상황에서도 축적돼 온 품질관리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수원 기자 moonsr@



전기안전 트렌드 (1) 김용욱 전기안전공사 정보운영처장

“전기안전 정보 총망라 스마트 시스템 구축 최종 목표”



전기안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한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됐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ESS, IoT 등을 필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전력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전기안전 역시 새로운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최근 IoT와 연계한 전력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인 미리온 보급에 나서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검사를 위한 기준을 내놓으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전기안전공사 사업부서별 올해 주요 중점 사업을 알아보고, 전기안전 트렌드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 시스템에 넣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용욱 전기안전공사 정보운영처장(사진)은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전기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정보운영처는 전기안전공사의 정보 분야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한 전산 시스템 업무부터 시작해 IoT 기반의 서비스 및 공공플랫폼 개발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전기안전공사가 조직한 정보운영처의 첫 번째 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처 소속의 정보시스템부였지만 지난해 3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정보기술 접목을 위해 처로 조직이 신설됐죠. 지난해 우리 처는 산하 정보시스템부와 정보보안부, ICT융합부 기반의 조직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어요. 특히 올해는 공공플랫폼을 ICT융합부로 격상한 만큼 해당 업무에도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또 “올해는 지난해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첫 처장인 만큼 앞으로

정보운영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운영처는 지난해 내부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와 더불어 국가 공모과제를 통한 전기안전 업무의 정보화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지난해엔 국가공모과제를 통해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했어요. 이를 통해 공공빅데이터 우수사례로 뽑히는 등 성과도 거뒀죠. 지난 사업들을 통해 전기설비 상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사전에 전기화재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문서24와 연계한 시스템도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점검사 신청과 공사계획 신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죠.”

올해는 특히 스마트 전기안전 플랫폼 사업을 통해 최근 추진한 빅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등을 총망라한 전기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전기안전 플랫폼을 통해 전기안전 정보 분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올해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나 전기안전 정보를 접하고,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우리 공사 내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대원 기자 ydw@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삼일전기공사(대표자:이재학)는 주식회사 삼일전기공사(대표자:이재학, 문정희)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삼일전기공사법규 제 7조의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양도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 서울-04653호
2. 양도(예정)일 : 2019년 2월 12일
3. 양도자 : 상 호 : 삼일전기공사
대 표 : 이재학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나길 6, 1층
전 화 : 02)2604-7968
4. 양수자 : 상 호 : 주식회사 삼일전기공사
대 표 : 이재학, 문정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나길 6, 1층
전 화 : 02)2604-7968

2019. 02. 11

양도자 : 삼일전기공사 대표 이재학

계측기 및 1, 2종 전설법정공구 소방면허 시설감리 전기 건축감리 장비 전문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 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 수동 펌프 HP700S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 3', 4')	유압압착기 12A(14~325)	각종 낫타	절연장갑·장화	누설전류계 절연저항계 홀크래머	취급제품 YOKOGAWA MULTI ZUMI ◆내전압시험기 제작전문◆ www.hdj.com (주)현대전기계측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02)2279-0427, 2278-3944 FAX. (02)2273-8758
특고 저압 검전기	누설전류계 Multi 140 φ40 m/m 0.01mA~300mA 누전사고예방	소음계 (320)	조도계 (1065)	계전기 시험기 8510	절연유 산화측정기(HD101)	접지 용구 후부유식 접지저항계		